

경주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심곡저수지 환경정비 나서...농업용수 수질관리 강화

박형기기자 입력 2026.05.27 댓글 0

경북도민일보
보훈대령장관 우국희

여름철 오염 대응체계 점검·주민 참여형 정화활동 병행

[illegible]

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여름철 농업용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저수지 환경정비와 오염 예방활동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는 최근 서면 심곡저수지 일원에서 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수질환경보전회의 및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과 수변환경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활동은 본격적인 영농철과 장마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수질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경주지사 직원들과 주민들은 저수지 주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낚시객이 남긴 각종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며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많이 본 뉴스

- 1 이 대통령 군위 방돈 놓고
여야 충돌...국힘 "관권...
- 2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
군갑 공천 후폭풍... 시...
- 3 탈당 공방에 '임명작 난
란'까지... 김부겸·추경...
- 4 법원, 삼성전자 총파업 앞
두고 제동... "평상시 수...
- 5 홍준표, 민주당 지지에...
한동훈 "민주당으로 월...

포토뉴스

아울러 진행된 수질환경보전회의에서는 여름철 고수온 및 집중호우 시기 농업용수 관리방안과 저수지 수질오염 예방대책, 불법 낚시행위 계도 및 환경보전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깨끗한 용수 공급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 점검에도 중점을 뒀다.

경주시사는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수질점검과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형 환경보전 활동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기철 지사장은 “농업용수 수질관리는 농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 관리의 출발점”이라며 “현장 중심의 환경관리와 예방 활동을 지속 강화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기기자

phk@hidomin.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① BEST댓글

최신뉴스

"미군, 호르무즈 네 이란 군사"

"당만 보고 찍는 시대 끝내야"

예천 신도시 주차타워 공사장

청도군, 2027년 지방소멸대응

APEC 개최 경주, 특급호텔 주

